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인간의 금에 대한 욕망과 이면에 감춰진 진실

찬란하게 빛나는 금과 연관된 문화·예술·종교·전쟁 등 조영 부와 권력·영원성의 상징 ...환경파괴·강제노동 대가 되기도

## 골드 - 금의 문화사

리베카 조라크 외 지음·임상훈 옮김

다음은 어떤 금속을 말하는 것일까.

원자번호는 79번이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전이원소로 중성자 118개, 양성자와 전자를 각각 79개 보유하고 있다.

주기율표에서 'Au'로 표기된다.

금속에 대한 웬만한 상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알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금속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채 발견되기 때문에 복잡한 제련 기술도 필요 없다"고 한다. 그렇다. 바로 '금'이다. 금은 하나의 원소이자 금속이다.

하나의 금속에 불과한 금이 인간에게 지속적인 인기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인간은 왜 금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더러는 전쟁까지 불사할까.

금을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일리노이의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인 리베카 조라크와 영화평론가인 마이클 W. 필립스 주니어가 펴낸 '골드-금의 문화사'는 금의 특징과 아울러 금과 연계된 문화와 예술, 종교, 전쟁



등을 조명한다.

금의 다른 무엇보다 노란 빛깔을 띤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관련이 있다. 금이 은에 비해 자신의 전자들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은은 핵에 47개의 양성자만 가지고 있지만 금은 79개를 가지고 있다.

색이 약간씩 다른 것은 다른 금속이 첨가돼 있기 때문이다. 노란색 광채는 순금의 특징인데 보석상들은 이를 '24캐럿 골드'라고 부른다. 금이 다른 금속들과 결합될 때, 다시 말해 금속에서 금 무게의 비율을 '캐럿'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1캐럿은 전체의 24분의 1이다. 따라서 18캐럿 금은 24분의 18이므로 금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금은 위험하다. 수많은 신화와 문화는 금에 대한 탐욕을 경고한다. 그만큼 인간의 금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신화 속 인물이나, 문학 속 주인공이나, 현대의 사람들이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다니엘 호손의 '원더북'에는 미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미다스는 친절을 베풀면 대가로 디오니소스로부터 자신이 만지는 것은 모두 금으로 변하는 능력

을 갖게 된다. 심지어 자신의 딸도 금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후회하고 다시 능력을 없애달라고 간청한다. 디오니소스는 강에서 씻고 오라는 말을 듣고 강으로 가지만 몰려져 금으로 변한다.

금의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도 감춰져 있다. 금을 노린 다국적 기업과 무장집단들 사이의 검은 거래와 분쟁이 그것이다.

"공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은 더욱 끔찍하다. 3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998년 2차 콩고전쟁 중 폭력, 위험한 상황에 노출, 굶주림과 의학적 도움 부재로 인해 사망했다. 이 전쟁은 르완다와 우간다 군이 자신들이 1996년 콩고에 옹립했던 독재자와 벌인 전쟁이었다. (중략) 이 지역에는 세계적으로도 이롭나 금광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학살은 다반사였다."

저자는 다국적 기업들은 군벌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군벌은 금을 캐 가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콩고에서 생산된 금 가루는 우간다로 갔다가 다시 유럽의 제련소로 수송된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인간의 고통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데, 금의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찬란하게 빛나는 금은 이렇듯 모순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산자와 죽은자를 장식



'골드-금의 문화사' 지은이는 몸에 금을 걸치려는 우리의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 욕망은 지속적으로 환경과 인간에 대가를 치르게 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고 부와 권력,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신성한 종교 의식에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식민지 탐사의 목적 자체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투자 대상이다.

저자는 몸에 금을 걸치려는 우리의 욕망은 변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이 욕망은

지속적으로 환경과 인간에 대가를 치르게 한다. '환경파괴, 삼대의 매춘,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이 금의 실제적인 대가라면, 결론만지지는 사라고 신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새터·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 비탄의 문 (전 2권)

미야베 미유키 지음·김은모 옮김

대학 생활에서 별다른 즐거움을 찾지 못하던 신입생 미시마 고타로는 우연한 계기로 신성 IT기업 '쿠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인터넷상의 공개 게시판, 개인 블로그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아내 감시하는 일이다. 때에 따라서는 수사 당국에 협력하는 이른바 사이버파트너가 주업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타로와 친하게 지내던 아르바이트 선배 모리나가 신주쿠 일대에서 노숙자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버린다. 고타로는 그의 행적을 쫓다가 신주쿠 유명 빌딩에 잠입한다.

2017년 데뷔 30주년을 맞은 미야베 미유키의 장편 '비탄의 문'은 미스터리와 판타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이다. 미야베 미유키는 '모방범', '화차', '솔로몬의 위증' 등 미스터리로 국내에도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 소설가다.

이번 작품에서 작가는 수많은 말이 살아 움직이는 인터넷 사회를 배경으로 그 안에 숨은 범죄와 악의 흔적을 들여다본다. 작가는 이번 소설을 쓰면서 실제로 일어난 여러 사건을 취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내용을 모두 소설에 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인간과 이야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엿보이는 색다른 미스터리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한다. "고이고 쌓인 말의 무게는 언젠가 그 말을 쓴 사람을 변화시켜. 말은 그런 거야. 어떤 형태로 깨닫든 절대로 자신과 떼어놓을 수 없어. 반드시 자신도 영향을 받지. 넌네임을 몇 개씩 번갈아 쓰며 아무리 교묘하게 정체를 감춰도, 글을 쓴 사람은 그게 자신이라는 걸 알아. 스스로에게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문학동네·각 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바꿀수없는

정지운 지음

2018년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70년 비극적 분단이 가져온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약속하며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19인의 '비전향장기수'들은 낮은 탄식을 해야 했다. 두 지도자의 선언문에 그들의 송환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직 사진기자가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모습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정지운 기자가 펴낸 '바꿀수없는'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겨져질지언정 자신의 신념을 거스르고 바꿀 수 없었던 19인의 생전 기다.

28세 늦깎이 대학생은 10분의 전향 연설을 거부해 37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쫓다왔던 빨치산 여전사는 하얗게 머리가 센 노인이 되었다.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법'의 감시는 계속됐다. 세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빨갱이' 중에서도 '골수 빨갱이'로 낙인찍힌 이들이 연고 없는 타향에 정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자는 지난여름 폭염 속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19인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만났다. 그들의 육성을 기록하고 사진기 앞에 세운 것이다. 지난해까지 19명이 있었지만 올해 김동수씨가 타계해 현재 비전향장기수는 18명이 남아 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이듬해 1차로 63명의 장기수가 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청을 못했거나 과거 강제로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남한에 남았다.

저자는 "그들은 역경을 이겨낸 만큼 강했다. 그리고 풍파를 겪고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담담하게 전해준 그들의 증언은 화석에 피가 통하고 숨결이 이는 듯 생생했다"고 말한다.



〈h2·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헌법재판소:아주까리 수첩 3001

최은진 지음

최은진은 근대기 노래를 현대적 감각으로 살려 책과 함께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노래하는 예술인 최은진이 8년 만에 책으로 만든 세 번째 앨범 '헌법재판소:아주까리 수첩 3001'을 펴냈다.

'헌법재판소'는 음반으로 그치지 않는다. 음반 자체가 288쪽에 달하는 서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근대 예술인들을 조명하는 음악사적인 해설과 시대를 오가며 감각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리메이크한 곡들에는 원곡의 정보와 근대 음악 연구자 이준희의 해설을 곁들였다. 노래마다 이해를 돕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28편의 이야기를 곁들였다.

지난 2집 '풍각쟁이 은진'에서는 일제 강점기 만요 13곡을 옛 정서에 맞게 되살려냈다면 이번 신보에서는 한층 전위적으로 근대 가요를 재해석했다. 앨범에는 실험적 감각으로 재탄생한 '청춘 블루스', '아주까리 수첩', '그리운 그대' 등 근대 가요 7곡과 '헌법재판소' 등 신곡 3곡 총 10곡이 수록됐다.

3번 노래 '아주까리 수첩'에는 '아주까리 꽃 따는 섬' 이야기를 접목해 노랫말에 대한 설명을 풀어냈다. 8번 '고향 파트 2'에는 작사가 조영출의 '잊을 수 없는 가요들에 대한 범죄적 위조 행위'라는 비평을 실었다.

원곡이 처음 발표되던 시대의 문화를 집적하게 하는 수필과 철학적 소고도 곳곳에 자리했다. 월북한 근대 문학가로부터 황현선, 김인환, 윤후명 등 최은진과 가까운 문인들 그리고 시인 이우성, 조병준 등 다양한 세대의 필자들이 모였다.

최은진은 '읽는 음반'이라는 또 하나의 실험을 통해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대중성의 가능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수류산방·2만8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